

나주 향교길 '마중3917' 관광명소로 뜬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근·현대사 품은 고택·정원 복원
한옥숙박체험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주말마다 다양한 행사도

나주시 향교길 '마중3917'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에 선정됐다.

나주시는 고택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마중3917'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1939년 나주의 근대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는 의미인 '마중3917'은 2017년부터 목서원 및 난파정(1915년), 시서헌(1917년) 등 고택과 정원을 원형 복원했다. 또 마중3917은 목서원을 중심으로 4000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공연과 체험, 숙박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진행하고 있다.

마중3917은 이번 선정으로 문체부로부터 관광 아이템 개발·운영, 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등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비 8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마중3917은 매주 주말 '금성별곡',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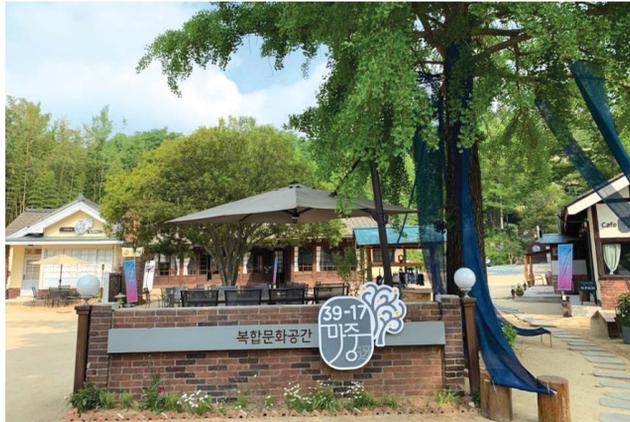
정별리', '별보는 우부리' 등 나주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남도 먹거리의 진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남도 음식 명인의 맛 콘서트', '골목요리사들의 별미식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남도의 가락과 고즈넉한 고살길 풍경이 어우러진 '별빛이 아름다운 별고살길'을 조성해 목서원 일대 나주향교권역을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서원은 1896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나주를 수성한 향리수장 난파 정석진의 손자 정덕중이 모친을 위해 1939년 건립한 가옥이다.

특히 목서원은 한·일 건축 양식을 절충한 근현대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대표적 건축물로 당대 건축 대가였던 박영만이 설계와 공사를 맡았다.

마중3917 주변에는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촬영지 나주향교와 조선시대 나주관아 객사 금성관, 나주목사내야 등 나주를 대



'마중3917'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서원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 마중3917 일대. (나주시 제공)

표하는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시는 마중3917이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마중물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우진 마중3917 대표는 "나주에 잘 보존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살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주향교권역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독거노인들에 '든든한 밥상' 지원합니다

나주시·한전KPS 등 사업 추진

나주시가 관내 독거노인들에 부족한 영양 섭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5월부터 독거생활로 인한 영양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게에 밀반찬을 지원하는 '든든한 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한전KPS,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주시노인복지관 등과 협력해 연말까지 매월 1회 진행한다.

든든한 밥상은 나주시노인복지관이 밀반찬(식품기트)을, 한전KPS와 전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시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배달 등 사업 총괄 임무를 맡았다.

시는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직원 및 지역사회조직협의회 위원 등을 통해 생계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68명에게 밀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필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밀반찬 지원사업으로 소외된 독거노인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하고 심신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2019 공예주간' 행사 다채

천연염색 체험·플리마켓에 해외전시회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2019 공예주간'을 맞아 해외 전시회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2019 공예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해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시, 마켓, 체험, 투어, 토크, 이벤

트 등을 하는 공예문화행사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2019 공예주간'의 지역 공예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청출어람 2019, 나주'가 선정돼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나주 원도심을 무대로 천연염색 및 공예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천연염색 사방팔방 갤러리,

천연염색 골목길 갤러리, 천연염색 하천 갤러리, 천연염색 쪽빛 하늘 갤러리, 천연염색 미술관 등 선보인다.

전시회 외에도 전통문화체험, 도자공예 체험, 천연염색 공예체험,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1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있는 섬유공예박물관에서 '2019 공예주간'을 알리는 천연염색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타이완 섬유공예박물관에서는 이 기간

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를 초청해 '슬로패션(Slow Fashion)-아태섬유공예특별전'을 연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허복규 국장은 "올해 공예주간은 공예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환상적인 이벤트로 점차 해외 수요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라며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타이완에서 실시하는 천연염색작품 전시회는 '2019 공예주간' 해외 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과 가족이 산란계 농장에서 나온 유정란을 활용해 짬뽕꾸러미 포장 체험을 하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소비자 교류 체험투어 인기

나주시에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투어가 성황리에 마쳤다.

나주시는 최근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투어를 로컬푸드 소비자회원 및 가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고 16일 밝혔다.

로컬푸드 체험투어는 지역 농촌자원을 활용,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 증진 및 로컬푸드 소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월 1회(총 7회) 운영된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체험투어는 노안면 이슬촌마을과 나주시 농업인공활성화센터에서 농업과 먹거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체험단은 Non-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농가로부터 직접 사육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장에서 생산한 유정란을 활용한 짬뽕 꾸러미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또 체험단은 로컬푸드직매장에 갯잎, 열무 등을 출하하는 농가를 방문해 알맞이 배추 수확 체험도 가졌다.

시는 소비자들의 참여의지를 반영, 매달 체험투어를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시는 로컬푸드 서포터즈단 운영 등 소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류 및 학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나주시 로컬푸드팀 관계자는 "로컬푸드 체험투어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착한여행'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소비자는 내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농가가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심향사 주지 성오 스님 '불복장작법' 주요 전승자 인정

나주시 심향사(壽香寺)에 주지 성오 스님(사진)이 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佛裱藏作法)' 주요 전승자로 인정됐다. 나주시에 따르면 심향사 주지 성오 스님이 지난달 30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139호)로 신규 지정된 불교 전통의식 '불복장작법'의 주요 전승자로 인정받았다.

는 점을 들었다. 또 문화재청은 2014년 4월 설립되어 불복장 의식을 전승해온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 의식보존회'(이하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불복장작법은 불상이나 불화 등을 봉안하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품(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배경으로 고려시대부터 700년 이상의 전통이 있으며, 해당 의례의 저본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돼 조선시대 들어 활발히 설행됐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왔다

문화재청은 보존회가 불복장 법식에 따라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불복장 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아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성오 스님은 보존회 내 주요 전승자로서 오랜 시간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힘써왔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